

“신비주의? 전 그냥 평범해요”

영화 '뷰티풀 데이즈' 이나영

6년 만에 스크린 컴백 탈북 여성 굴곡진 삶 연기



“저 진짜 신비주의 아닙니다.” 배우 이나영(39)이 6년 만에 영화 ‘뷰티풀 데이즈’ (윤재호 감독)로 스크린에 돌아왔다.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이나영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듯 작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연기관 등을 솔직하게 들려줬다. 거침없는 입담과 탈북한 모습이 그간 그를 감싼 ‘신비주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듯했다.

오는 21일 개봉하는 ‘뷰티풀 데이즈’는 한 탈북 여성(이나영)이 생존을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굴곡진 삶을 아들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린 작품.

조선족 청년 쟈첸(장동윤 분)은 병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으로 자신들을 버린 엄마를 찾아 서울로 온다. 쟈첸은 14년 만에 만난 엄마가 술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엄마는 그런 쟈첸을 무심하게 챙긴다.

엄마에 대한 실망감만 안고 중국으로 돌아간 쟈첸은 엄마가 몰래 가방에 넣어둔 일기를 본 뒤 비로소 엄마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된다.

이나영은 과거와 현재와 중국, 한국 등을 오가며 20년에 걸친 한 여성의 신산한 삶을 절제된 감정으로 연기했다. 대사는 많지 않지만, 눈빛과 몸짓은 한층 성숙해지고, 풍부한 감성이 묻어났다.

“시나리오를 정말 재밌게 보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읽자마자 고민 없이 선택했죠. 제가 인생 영화로 꼽는 중국 배우 궁리 주연의 ‘인생’, ‘귀주 이야기’ 같은 작품들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나영은 촌스럽고 수수한 10대 중후반 소녀부터 시골 농부의 아내, 중국서 술집에 다니는 도박적인 여자, 한국에서 술집

마담이 된 30대 여인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저예산 독립영화로, 불과 3주 만에 15회차 촬영으로 완성된 작품이지만 감정의 밀도는 촘촘하다.

“예전부터 시골 여성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 이미지를 바꾸겠다기보다는 제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 뽀글 뽀글하게 하고 싶고, 아마 저 스스로 보고 싶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나영은 극 중 이름이 없다. 그저 쟈첸 엄마로 나온다. 어린 시절 헤어진 아들과 10여 년 만에 만났지만, 모성애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억누른다. 언뜻 보면 감정을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쟈첸 엄마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고아인 데다 10대 때 북한을 탈출한 이후 매우 많은 일을 겪었죠. 가끔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다 견어내고 축수 하면서 담백한 엄마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불친절할 수 있지만, 여백이 많이 생기면서 관객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나영은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그는 “원래 소재가 다양한 저예산 독립영화를 좋아해 (노개런티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영화 ‘영여 완전 정복’ (2003), ‘아는 여자’ (2004),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6) 등에 출연한 이나영은 영화 ‘하울링’ (2012) 이후 톱스타 원빈과 결혼했고 한 아이 엄마가 됐다. 그 뒤로도 CF에서는 얼굴을 계속 내비쳤지만, 작품 활동이 뜸하면서 대중과 거리는 멀어졌다. 그는 “그동안 평범하게 지냈다. 가정이 생겼고, 운동도 하고, 대본 회의도 했다”면서 “전 진짜 신비주의가 아닌데, 주변에서 왜 저구 신비주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공백기가 길어진 것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있지만, 제 호흡대로 기다리고 싶었죠. 원빈 씨에게도 이 대본 모니터를 부탁했어. (원빈은) 배우로서 감정 연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잘하라고 응원해줬죠.”

이나영은 “원빈 씨와는 친구처럼 지낸다”면서 “남들은 ‘너희 둘이 이야기는 하니?’라고 묻는데,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 같은 사이”라고 말했다.

내친김에 원빈의 근황과 차기작 계획도 물었다. “원빈 씨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작품을) 안 해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하하. 원빈 씨 역시 휴머니즘 등이 담긴 그런 장르의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연출가 김민준 감독은 “이나영은 친구처럼 지낸다”면서 “남들은 ‘너희 둘이 이야기는 하니?’라고 묻는데,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 같은 사이”라고 말했다.

장미여관 해체 뒷말 무성



“육중완·강준우가 3인 나가기 했다” 소속사 “불화 있었다는 건 사실” ‘육중완밴드’ 이름으로 새로운 활동

5인조 밴드 장미여관이 해체하며 씁쓸한 뒷모습을 남기게 됐다.

사건은 12일 오전 8시계 소속사 록스타뮤직엔터테인먼트가 보도자료를 내 “장미여관이 당사와 계약이 종료하는 11월 12일을 기점으로 팀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시작했다.

록스타뮤직엔터테인먼트는 “멤버 육중완과 강준우는 ‘육중완밴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장미여관 다섯 멤버들의 앞으로 활동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임경섭, 윤장현, 배상재가 페이스북에 ‘장미여관은 공식 해체하지 않았습니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세 사람은 “먼저 팬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오늘 아침 소속사 명의로 나간 장미여관 해체 소식을 잘못을 바로잡고자 부끄러운 얼굴을 들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장미여관은 해체가 아니라 분해됐다. 두 사람(육중완, 강준우)이 세 사람에게 장미여

관에서 나가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미여관은 구성원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무개와 장미여관’이 아닐뿐더러 ‘아무개 밴드’는 더더욱 아니다. 장미여관은 5인조 밴드다”라며 “내세울 것 없는 무명 연주자들이 뜻밖의 행운 덕에 지난 7년간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록스타뮤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장미여관이 불화로 깨진 건 맞다”며 “밴드를 유지하기 힘들어 지지 육중완, 강준우가 나중에 밴드에 합류한 세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미여관 자체의 전속계약은 만료됐으며, ‘육중완 밴드’를 하자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뿐 육중완, 강준우와 따로 계약이 성사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미여관은 2011년 강준우(기타 겸 보컬·38), 육중완(기타 겸 보컬·38), 임경섭(드럼·40), 윤장현(베이스·44), 배상재(일렉기타·39)를 멤버로 결성돼 미니앨범 ‘너 그러다 장가 못간다’로 데뷔했다. 수록곡 ‘봉숭아’가 훗날 큰 사랑을 받았다. 이들은 2012년 KBS 2TV ‘톱텐 2’에 출연해 독특한 음악과 외모, 재치있는 입담으로 주목받으며 밴드 노브레인의 소속사 록스타뮤직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연습실

KBS 수목극 ‘왜그래 풍상씨’ 주연 맡은 준상씨



배우 유준상(사진)이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왜그래 풍상씨’에 출연한다고 각 소속사가 12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나 결코 평범하게 살지 못한 풍상 씨 이야기 속에 담긴 가족 이야기를 그린다. ‘우리 갑순이’, ‘왕가네 식구

들’, ‘수상한 삼형제’, ‘소문난 칠공주’의 문영남 작가 신작이다.

유준상은 주인공 이풍상을 연기하고, 이시영은 풍상씨 5남매 중 넷째 화상으로 분한다. 이외에 전혜빈 등도 출연한다. 내년 1월 초 방송 예정.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최고의 이혼(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극선 뮤직토코쇼 가요1번지 50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10 세상의 모든 다큐	20 MBC PICK X 언더나인틴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30 아생여정(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뽀뽀 모모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1 대 100(재)	15 차중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1 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0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습터	00 최고의 이혼	00 배드파파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솔밭 김제동	10 불불갈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특집다큐 청년 내일을 찾다 50 KBS 결박 다큐멘터리(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 우영말이 조림과 총각무 장아찌>)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지중해 맛기행 -2부 지중해 슬로우 푸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8:00 땡땡땡 유치원1~2	13:40 엄마를 찾자마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4:30 미니특공대 X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9:00 뽕뽕뽕 뽕뽕로	15:15 파프리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10:30 한국기행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땡땡땡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1~5
	19:00 미니특공대 X
	19:30 EBS 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20:40 세계테마기행 (<전쟁과 평화의 땅, 북 코카서스를 가다>)
	21:30 한국기행 (<볼타오르네 2부 단양의 가을, 그 빨간 맛>)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조식포함 아파트
	23:55 엄마를 찾자마(재)
	24:50 한국영화특선 (왕실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3일(음 10월 6일 己酉)
36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48년생 완벽하게 처리해야 뒤따라 없을 것이다. 60년생 빈틈 없는 계획 수립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72년생 미루다가 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84년생 지나친 집착은 심신만 파곤하게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67, 71	42년생 규모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다. 54년생 확실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본디대로 대항이 나올 것이니라. 78년생 의무를 다하고 나면 바람직한 국면에 처하리라. 90년생 앞뜰해야 실속이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9, 65
37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 의식할 필요 없다. 49년생 여유를 갖고 신중히 처리하라. 61년생 다년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73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85년생 평상시의 습관에 의지하지 말고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9, 18	43년생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불 일이다. 55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67년생 한 곳에 몰입하다 보면 주변 상황에 소홀해지기 쉽다. 79년생 합심하여 병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91년생 낙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55, 47
38년생 조처한다면 훗날의 약재를 윈전 봉쇄하게 된다. 50년생 과신하다가 망칠 수도 있다. 62년생 치밀한 계획 하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조처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74년생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 주자. 86년생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4, 91	44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의외로 얻는 바가 많다. 56년생 안목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68년생 바늘을 아끼려다가 황소를 잃는 격이다. 80년생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9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0, 17
39년생 겉으로만 풍성할 뿐이지 실속은 빈약하다. 51년생 겉모습은 무의미한 법이니 이목을 의식하지 말고 내실 있게 진행하라. 63년생 준비해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액땀할 것이다. 75년생 난해하게 형용어지는 형국이다. 87년생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81, 85	45년생 효율성의 시각에서 가닥을 잡자. 57년생 관심을 갖는다면 진척의 단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69년생 패도난마 해야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81년생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가장 절실한 때이다. 93년생 적용하는데 힘이 들겠다. 행운의 숫자 : 48, 96
40년생 원년부터 켈 일이다. 52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64년생 지난 날 쌓아 놓은 실적이 의해서 박수 받을 일 있다. 76년생 발 빠른 실태 분석과 조처가 절실하다. 88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의 돌발 상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4, 13	34년생 가법계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 사례 깊이 처리해야겠다. 46년생 방심하다가는 결정적인 흠결을 남길 수도 있다. 58년생 궤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70년생 정성을 다 하라. 82년생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29, 50
41년생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53년생 판세가 늦게까지 이어지겠다. 65년생 자기모순에 빠지면 헤어지지 못하리라. 77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89년생 앞서 간다면 역효과를 초래하리라. 행운의 숫자 : 62, 82	35년생 능력이 오르고 활력이 넘치겠다. 47년생 속사정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59년생 양자 간의 관련성은 희박하므로 결부 지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71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으니 주마가편하라. 83년생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90, 83